

| 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
| 보도 | 2025.5.27.(화) 조간 | 배포 | 2025.5.26.(월)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

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감독총괄국 감독혁신조정팀 | 책임자 | 국 장 | 김충진 | (02-3145-8300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최범전 | (02-3145-8310) |

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

- ◆ 그간 금융감독원은 **금융지주·은행 18개사** 및 **대형 금융투자회사·보험사 53개사**를 대상으로 「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」을 완료
- ◆ 향후에도 **설명회** 개최 및 추가 **실태점검** 등을 통하여 **금융권과 지속 소통** 하여 **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**할 수 있도록 **적극 지원**할 계획

I. 그간의 경과

- '24.7.3일 시행된 개정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이하 '지배구조법')」에 따라 ①**금융회사는**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, ②**책무구조도에**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
- 금융당국은 그간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①**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제공**, ②**「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」 마련**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

책무구조도 제도 도입 연혁

- ▶ ('23.6.22.) 금융위원 「금융권 협회장 간담회」 개최 및 「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」 발표
- ▶ ('24.1.2.) ①책무구조도 도입, ②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, ③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「지배구조법」 공포
- ▶ ('24.7.3.) 개정 「지배구조법」 시행 및 해설서 공개
- ▶ ('24.12.11.)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「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운영지침」 확정 및 시행
- ▶ (제출일 ~ '25.1.2.) 금융지주·은행 18개사 대상 「책무구조도 시범운영」 실시('25.1.3. 62개사 정식시행)
- ▶ (제출일 ~ '25.7.2.) 대형 금투·보험사 53개사 대상 「책무구조도 시범운영」 실시('25.7.3. 67개사 정식시행)

Ⅱ.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

※ 아래 내용은 금융지주은행 및 대형 금투·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제기된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으로 각 금융회사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

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책무 배분 기준 상이

□ 각자대표를 선임*한 일부 금투·보험사(8개사)의 경우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.

* 통상 경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대표(경영관리조직 + 일부 영업조직 담당)와 영업대표(영업조직만 담당)의 2인 체제로 운영

○ ①각자대표별로 소관 업무에 한정하여 책무를 배분하거나, ②책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단독 배분 또는 모두에게 배분(혼합 배분)하는 등 회사별 배분 기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.

각자대표 체제의 책무 배분 (예시)

| 제출 유형 | 권고 사항 예시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☑ (유형1)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에 한정하여 책무를 배분 ☑ (유형2) 관리대표 단독배분 ☑ (유형3) 책무의 성격(관리조치의 내용)에 따라 관리대표에게 단독배분하거나 모든 대표에게 배분 (혼합배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☑ 책무의 성격상 '전사적 차원에서 점검·관리·운영의 필요성'이 있는 사항* → 관리대표에게 단독배분 * (예) 책무구조도 마련, 내부통제등 정책의 집행·운영 등 전사적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사항 ☑ 책무의 이행 대상이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 범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사항 → 각 대표에게 배분 |

➡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,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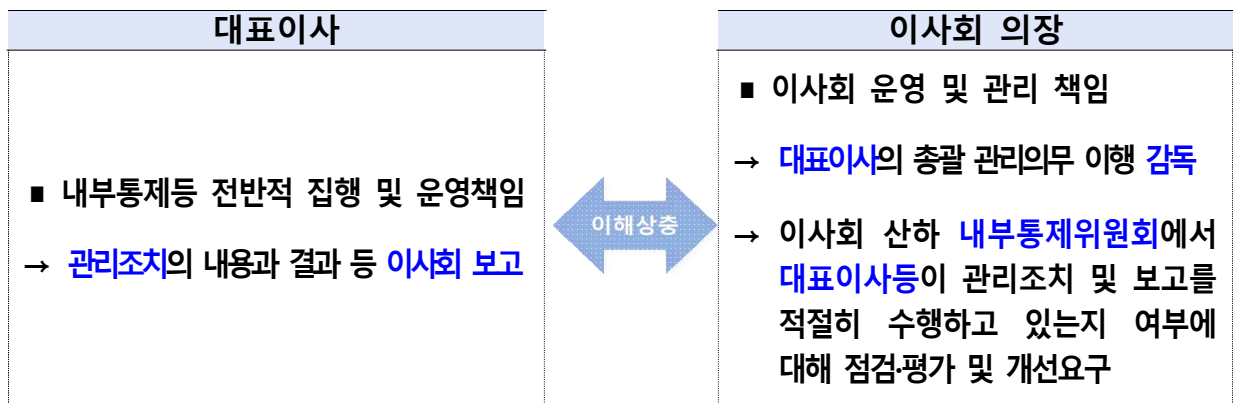
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소지

- 금융지주·은행과 달리 대형 금투·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사 중 25개사*(47.1%)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**중이었습니다.

* (금투) 27개사 중 11개사 (40.7%) / (보험) 26개사 중 14개사 (53.8%)

**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 겸직이 지배구조법(§13)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,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

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



→ 겸직 유지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.

주요 사례

- ☑ (○○社) 대표이사(사장)과 이사회 의장의 겸직에 대해서, 우리원은 겸직 유지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을 권고
- 회사는 이와 같은 우려를 감안하여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 이사로 구성하는 등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

3

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

- 상당수의 금투·보험회사는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(부문장 등)이 아닌 하위임원(본부장 등)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.

책무체계도 상 책무의 중층적 배분 (예시)



➔ 이에 따라 **상하위임원**의 **업무가 일치**하는 경우,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하여 **상위임원**에게 **책무**를 **배분**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주요 미흡 사례

- ☒ (▲▲社) A·B 부문장은 책무체계도 상 하위 임원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, '소관 그룹 각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에 대해 점검할 책임'을 배분받는 등 하위 임원의 업무에 대한 관리·감독만을 수행
 - 특히 B부문장은 산하의 소그룹장·본부장 등에게 3중 구조로 책무를 중복하여 배분
- ☒ (○○社) 책무체계도 상 A그룹장과 B본부장간에 상하 보고체계를 형성하였고, A그룹장의 소관부서에 B본부장의 소관부서가 포함되었으며, A그룹장과 B본부장 모두에게 '소관조직의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'하여, 책무의 중복이 발생

4

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노력

- ☐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·감독하는 임원 등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
 - ①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*하거나, ②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, ③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 보고서 대비 축소하여 배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.

* 지배구조법상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 되는 임원은 사외이사(이사회 의장 제외)에 한정

➔ 상근 여부,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책무 관련업무를 수행·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주요 미흡 사례

- ☑ (★★社) 지배구조법령 상 책무 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되는 대상은 사외이사(이사회 의장 제외)만 해당되나, 비상임이사 A에 대하여 사외이사와 동일하게 '법령상 책무 배분 대상이 아님'을 이유로 책무 미배분
- ☑ (■社) 실질적으로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사장(사내이사)에 대해서 "상법상 이사로서 감시의무 외 전결권한 없음"을 사유로 하여 책무 미배분
- ☑ (◆◆社) 이사회 의장(사내이사)은 '24년 사업보고서 상 담당업무가 '경영총괄'로 공시되어 있으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책무만을 배분받음

Ⅲ. 향후 계획

- 책무구조도 제도의 도입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,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.
 - 다만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.
- 이에 금융감독원은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*에 맞추어 ①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, ②설명회 개최, ③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·지원하겠습니다.

* (1단계: '25.1.3~) 전체 은행·금융지주회사 시행 완료
(2단계: '25.7.3~) 대형 금투(자산5조원↑or 운용자산 20조원↑)·보험(자산5조원↑)
(3단계: '26.7.3~) 2단계 시행 외 금투·보험 및 여전(자산5조원↑)·저축은행(자산7천억원↑)
(4단계: '27.7.3~) 3단계 시행 외 여전사(자산5조원↓)·저축은행(자산7천억원↓)

책무구조도 관련 간담회 및 설명회 개요

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미참여 대형 금투·보험사 대상 간담회 개최

- 일시·장소: '25.5.29(목), 금융감독원
- 대상: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형 증권·보험사 중 시범운영 미참여 8개사*
 - *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미참여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'25.5.16(금) 금감원에서 개최한 「2025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」에서 관련 내용 既 안내 완료
- 내용: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제기된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 설명

② 금투·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 개최

- 일시·장소: '25.6.19(목) 15:00, 금융투자협회
- 주최: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, 손해보험협회, 생명보험협회
- 참석대상: 금융투자·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업무 담당자(최대 200명)
- 주요내용: (15:00~15:10) 인사말(금감원)
(15:10~15:45)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·우수 사례(법무법인, 금융회사)
(15:45~17:00) 책무구조도 제도 개요, 해설서 및 FAQ 설명(감독총괄국),
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결과(은행검사1국)
FAQ 및 Q&A(공통)